

어린이 책꽂이



▲아빠의 우산='연탄길'의 작가 이철환이 실화를 바탕으로 쓴 이야기에 그림을 입혔다. 단간 방에서 다섯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민희네 가족이 여러 시련을 겪어야만 이겨나가는 과정을 그렸다. 아빠가 집에 비가 새 들어오자 지붕 위에 우산을 받아들고 서 있다. 수채화풍의 그림과 함께 서정적으로 그려졌다. 〈대교출판·1만원〉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남과 북 양쪽에서 백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갖가지 무기로 무장을 한 채 맞서고 있는 '무장하지 않은 지역'의 자연과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기에 동식물의 보고가 된 곳, 자연의 생기와 인간의 삶복합이 교차하는 묘한 풍경을 철따라 묘사하고 있다. 〈사계절·1만500원〉



▲얼음꽃을 심킨 아이=현직교사 작가 박향씨의 첫 장편소설. 국가와 학교, 가정을 지배하는 폭력적 분위기 속에서 10대를 보내는 한 소녀의 성장담을 그린 소설이다. 부산을 배경으로 초등학교 5학년인 주인공 '수희'와 그 가족이 겪는 비극적 사건과 함께 1970년대의 역사적 사건들을 날실과 씨줄처럼 엮었다. 〈실천문화사·9500원〉



▲동화 작가 조성자와 떠나는 루브르 박물관=조성자씨가 루브르 구석구석을 다니며 얻은 생생한 경험과 다양한 정보를 고스란히 담았다. 박물관 입구부터 시작해 전시된 미술품을 차례로 설명한다. 루브르에서도 최고 걸작으로 불리는 82점을 꼽아 리슬리외관, 쉴리관 등 3개로 나눠, 관별로 소개한다. 〈시공주니어·1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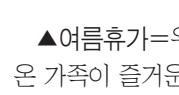
▲우리 역사를 잊은 8명의 학자 이야기=위대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 역사를 풀어왔다. 태조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건국한 점도 전부터 조광조, 이황, 이이, 송시열, 박지원, 정약용, 최익현까지 쟁쟁한 학자들의 사상과 삶을 다뤄 각 시대의 근간이 된 정신문화와 생활문화 등을 엿볼 수 있게 했다. 〈어린이작가정신·9500원〉



▲꼼짝도 하지 않기!=애니메이션 '라이온 킹' '니모를 찾아서'를 만든 토니 퓨슬이 선보이는 첫 그림책. 그림 그리기, 게임, 책보기, 운동 등 할 수 있는 놀이를 다했는데도 심심한 샌과 프랭크는 재미있을 법한 놀이 '꼼짝도 하지 않기'를 생각해낸다. 깜찍한 인물의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그려냈다. 〈뜨인돌어린이·1만500원〉



▲아무도 모르는 일=1991년에 등단한 동화를 써온 작가 정진숙씨의 첫 번째 동시집이다. 동화 작가이지만 예전부터 동시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던 작가는 동시에 동화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풀어가면서 새로운 '야기 동시'를 선보였다. 동화작가의 장점을 살려 재미난 이야기 동시만 들었다. 〈청개구리·9000원〉



▲여름휴가=우리 그림책 시리즈 3권, 콜이라는 재미난 소재로 온 가족이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낸다는 가족사랑이 잘 표현된 그림책이다. 피곤한 아빠코끼리의 뜬바람에 날려 코리와 코끼, 엄마코끼리는 그만 해수욕장 모래언덕에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아빠가 없으니 여름휴가를 즐거울 리 없다. 〈국민서관·1만2000원〉

세계적 예술가에 영감을 준 '뮤즈'

예술가의 탄생...

유경희 지음



비틀즈의 존 레논은 이 야기 할 때, 그 여자 오노 요코를 언급하지 않을 수 있을까? 멤시코를 대표하는 조현실주의 화가 프리다 칼로의 삶에서 남편 이었던 화가 디에고 리베리의 존재는 얼마나 뚜렷한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작품을 생산해온 예술가들의 예술흔을 자극했던 요인들을 살펴본 책이 나왔다.

대학에서 미화와 예술이론을 가르치는 유경희씨가 펴낸 '예술가의 탄생'~예술가의 창조력을 일깨운 뮤즈 이야기'는 예술가들의 일생과 작품 세계를 예술적 영감이 된 '사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풀어나간다.

예술가들을 만들어낸 뮤즈는 단순히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신체적 아픔과 고통, 장애를

창작의 근원으로 삼은 예술가들도 있었고,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철학 자체를 예술의 출발로 여긴 이들도 있었다.

비틀즈가 해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오노 요코는 비틀즈 멤버들과 팬들에게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존재였다.

전작 예술가이며 개념미술가였던 그녀는 존 레논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예술적 입지를 공고히 했고, 존 레논은 역시 지적으로나 예술적으로 우월했던 오노 요코를 뮤즈와 멘토로 송배, 자신의 예술적 영감의 원천으로 삼았다.

여성을 소재로 세기말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의 그림을 그려 '퇴폐한 예술가'로 혹독한 비난을 받았던 구스타프 클림트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동생의 처제인 에밀리 폴레게와 400여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며 예술과 인생을 논했고, 그 것들은 그의 작품의 영감이 됐다.

화가로서는 드물게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균형성 외소증을 앓았던 앙리 드 블루즈 로트레크에게는 몽마르트의 창녀들이 악상처였고, 그녀들에게 느꼈던 동법상관의 일체감은 로트레크로 하여금 위선과 가식을 벗어던지고 창작에 몰입하게 했다.

반면 대중문화의 싸구려 산물과 일상의 불건들을 예술로 끌어올린 현대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



오노 요코와 존 레논은 서로의 예술흔을 자극한 뮤즈였다.

흘의 예술흔을 자극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한 것이 아니라 유명해지고 싶다는, '평생'이라는 실체 없는 욕망이었다.

책에서는 그밖에 예술과 일상의 조화를 꾀한 실현적인 예술지만 평생은 운둔하다시피 체스 두는 일로 보냈던 마르셀 베상, 광기를 지배하는 여자와 순수하고 자기희생적인 두명의 여성과 더불어 예술의 황금기를 누렸던 모딜리아니, 프란시스코 고야, 잭슨 풀록, 폴 고갱의 이야기를 만

날 수 있다.

예술가들의 작품과 관련 사진 등도 풍성하게 실었으며 각 꼭지 말미에 예술가와 관련된 사조, 한 예술가와 연관된 다른 예술가들을 따로 '아트 팀'으로 끓어 미술사적 정보도 제공한다.

2003년에 발간됐다 절판된 '예술가와 뮤즈'의 개정판이다. 〈아트북스·16000원〉

/김은기자 mekim@kwangju.co.kr

느리게 살면서 배우는 삶의 가치

슬로시티를 가다

장정희 지음



오염된 환경과 건강하지 못한 먹을거리, 경쟁과 성과 위주의 고된 일상으로 삶의 가치와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시대에 환경과 느림의 미학에 애착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여기서 비롯된 것이 슬로시티 운동이다.

소설가 장정희씨가 쓴 '슬로시티를 가다'는 세계 슬로시티 연구본부의 실사를 거쳐 인정받는 한국의 대표 슬로시티 다섯 곳을 거닐며 느리게 사는 삶의 가치를 배우는 행복한 여정을 담은 여행이 세이다.

작가는 왓도 청산도에서 시작해, 장흥 유치, 하동 악양, 신안 중도, 담양 청평을 거니는 여정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과 건강한 먹을거리, 공동체적 삶의 가치와 슬로시티의 미학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장씨는 책에서 느림의 미학으로 자신이 체험한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먹을거리, 공동체적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일상과 삶의 건강성이 회복되기를 기원한다.

장씨는 영광 출생으로 전남대 국문과를 나와 2004년 '문학과 경계' 신인상 수상으로 등단했으며 지난해 첫 작품집 '훔, 스위트 흔'을 냈다. 광주대광여고에서 교사로 재직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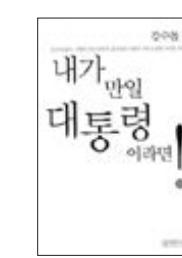
〈휴먼&북스·1만4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마을 이장된 교수, 무슨 꿈을 꿀까

내가 만일 대통령이라면!

강수돌 지음



진보적 경제학자 강수돌 교수가 지난 2005년부터 5년간 조치원 신안1리 마을 이장을 하며 꿈꾸었던 이야기를 한데 모아 '내가 만일 대통령이라면!'으로 엮어냈다.

강 교수는 이장 역임에 대해 진정한 마을 주민이 되어가는 과정이었고, 자신이 공부하고 깨친 이론적 입장장을 현실 속에서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로부터의 한국사회가 행복감에 충만한 새로운 사회로 변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대통령이 된다면 하고 싶다는 일들은 이러하다. 응산 찬사나 천안한 찬사의 유가족을 찾아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쌈용차와 같은 노동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미디어밥을 폐기하고, 특목·자사고를 폐기하고, 고교·대학 평등화를 시도하고, 유기농업에 헌신하는 농민들을 대우하는 것들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통일문제의 해결 방안에 관해서이다. 지금처럼 남한과 북한의 기득권자들이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풀뿌리 민중'이 서로 원하는 방식의 통일을 토론하는 것이다.

강 교수는 이외에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이슈가 되었던 여러 현안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행복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소박하면서도 촌철살인 같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생각의나무·1만3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인디언들의 자연과 교감 방법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포리스트 카터 지음



오랜 세월 동안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의 영문판과 한글판을 한 권으로 묶은 영한역본이 출간됐다.

1976년, 미국에서 'The Education of Little Tree'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책은 별간된 지 15년, 저자 사후 12년이 지나고서야 제대로 평가된 특이한 책이다.

저자 포리스트 카터의 자전적 성장 소설이기도 한 책은 5살의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어린 나무'(저자의 어릴 적 인디언 이름)가 제로키족 인디언인 할아버지와 할머니 밑에서 체로키족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백인들의 인디언 강제 이주 정책으로 산 속에서 살게 된 조부 모내외는 '어린 나무'에게 산의 일부가 되어 산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чи 준다. 거주장소로 구두를 벗어 던지고, 부드러운 인디언 신발을 신고 산 속에 뛰어다니는 '어린 나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가르침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방법을 하나 둘 배워나가며 삶에도 생명이 있음을 깨닫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10년 넘게 장기 베스트셀러로 오르면서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어 누구나 한번쯤은 읽어봐야 할 작품으로 자리 잡았다. 원작과 함께 MP3 CD로 수록해 감동을 배가했다.

〈아름드리미디어·1만3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예셋코리아에서는 흥미롭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부동을 선별합니다.

근린사회/환경 대표이사 010-7570-7525

주택사업/생활 감찰통제부 010-8033-0114

경찰/로지 경찰서 010-5878-0005

경찰/제1경찰서 010-5878-0005

경찰/제2경찰서 010-5878-0005

경찰/제3경찰서 010-5878-0005

경찰/제4경찰서 010-5878-0005

경찰/제5경찰서 010-5878-0005

경찰/제6경찰서 010-5878-0005

경찰/제7경찰서 010-5878-0005

경찰/제8경찰서 010-5878-0005

경찰/제9경찰서 010-5878-0005

경찰/제10경찰서 010-5878-0005

경찰/제11경찰서 010-5878-0005

경찰/제12경찰서 010-5878-0005

경찰/제13경찰서 010-5878-0005

경찰/제14경찰서 010-5878-0005

경찰/제15경찰서 010-5878-0005

경찰/제16경찰서 010-5878-0005

경찰/제17경찰서 010-5878-0005

경찰/제18경찰서 010-5878-0005

경찰/제19경찰서 010-5878-0005

경찰/제20경찰서 010-5878-0005

경찰/제21경찰서 010-5878-0005